

이치리즈카는 에도시대에 에도 니호바시를
기점으로 규토이 사주 대교까지 이어지는 주요
가도에 1리(일보이 1리는 약 4km)마다 설치한
여행의 이정표이다.

츠주는 게이초 9년(1604년)으로 추정되며 도로의
서쪽에 사반 약 9m 높이가 약 3m 정도이 흙을
복구하게 쌓아올리고 그 위에 팽나무나 소나무를
심었다.

마음 내이 이치리즈카는 야부하라와
요시다(에도에서 67리와 69리)라는 두 곳에
있었다.

시간이 흘러 현재는 그 원형을 볼 수 없다.

그곳을 이치리즈카라고 하며 그 이름은 지금도
남아있다.